報 道 資 料	보험개발원
	경영기획팀 손지영 책임/ 기획조사팀 박진호 선임
2001. 10. 27(토)	☎ 02-368-4106/031-642-1100

운전중 부주의한 행동 교통사고 유발

- 운전중 핸드폰 사용 가장 위험 -

保險開發院(원장 朴性昱) 附設 自動車技術硏究所에 따르면 운전중 운전자의 주의력을 흐트러뜨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유형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운전중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행동유형

- 담뱃불 붙이기, 음료수 마시기, 핸드백에서 선글라스 꺼내어 착용하기, 도로안내 지도 보기, 라디오 켜기, 핸드폰 통화(번호 누르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각 행동유형별 소요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담뱃불 붙이는데 평균 약 3초, 음료수 마시는데 4초, 선글래스 착용하는데 4초, 안내지도 보는데 최소한 4초 이상, 라디오 켜는데 3초, 그리고 전화번호 누르는데 약 5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소요시간을 차가 시속 96Km(60마일)로 주행한다고 가정하고 거리로 환산한 결과 대략 80 140m를 무방비 상태로 주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운전 중 행동유형 및 소요시간에 따른 주행거리>

행동유형	담뱃불 붙이기	음료수 마시기	선글래스 착용하기	도로안내 지도 보기	라디오켜기	전화번호 누르기
소요시간	3초	4초	4초	4초 이상	3초	5초
주행거리	80미터	110미터	110미터	110미터 이상	80미터	140미터

□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직면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담뱃불의 경우 차내에 장착되어 있는 라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요시간을 줄이고, 음료수를 마시거나 선글래스 착용, 그리고 핸드폰 사용의 경우는 안전한 지대에 정차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며 라디오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를 미리 기억시켜 놓음으로써 부주의 시간을 최소할 수 있다. 도로지도는 출발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봐서는 안 된다.